

과학과 미술의 환상적 만남

함평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 프로 민화에 대한 쉬운 접근으로 수강생 긍정적 평가



함평교육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 및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의 흥미와 경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삶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계절을 그려보자'라는 주제로 사계절 꽃 머그컵 만들기,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어~열수!!'라는 주제로 민화 그리기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특수교사들로 구성된 어울림특수교육사이언스 연구회의 교육기부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계절 꽃 머그컵 만들기는 과학교과와 연계해 계절과 꽃을 알고 자신만의 머그컵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민화그리기는 전통 채색기법인 바림기법을 통해 민화를 좀 더 쉽게 접근해 색의 다양성을 알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제가 직접 고르고 색칠한 그림이 머그컵으로 완성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민화는 처음 그려보는데 우리나라 전통그림이 생각보다 멋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숙 교육장은 "방학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현대과학과 전통미술에 흥미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2020 환경부 인증 목포공고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선정

한국 최초 NCS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 도입

목포공고 화공과는 그동안 진행한 환경교육과정 '환경 취업 마스터' 과정이 우수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부가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정성 등을 심사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국 고등학교중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환경 취업 마스터'는 공업계열고등학교로는 최초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됐다.

환경부가 인정한 '환경 취업 마스터'는 대한민국 최초로 'NCS 수질환경 산업기사 과정형 평가' 과정과 '환경기능사'를 공부하는 과정으로 안전과 환경이 강조되고 고등학교 재학 중 전문대 스펙을 갖출 수 있으며 이에 목포공고 화공과 교사들은 NCS 수질환경산업

기사 기준 최신 기자재 도입과 실습실 리모델링 등의 학과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번에 담당교사는 환경 교육 유공 교원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최초로 NCS 수질환경 산업기사 과정 도입이 예정되며 오랜 자격증 지도의 노하우로 재학 중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제(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스펙을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NCS 평가 도입과 2020년부터 환경분석사 의무채용으로 NCS 수질환경 산업기사 과정평가형을 준비함으로써 공기업과 환경분석사 취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2020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



화 사업'에 선정되어 학과에 4억 이상의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며 NCS 수질환경산업기사 기준 최신 기자재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세계기능경기대회 시범종목인 수처리 기술 장비 도입 및 실습실 리모델링 등의 학과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있다.

김상호 교장은 "평소 환경과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목포공고 화공과를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2020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개최

행복동부 실현' 위한 5대 시책 및 4대 과제 제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6~7일 양일간 광주교육연구원 강강당에서 2020학년도 '동부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7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초·중학교 교감, 교육과정 담당자 등 2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해 '학생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동부교육' 실현을 위한 5대 주요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5대 시책은 ▲중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실현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교육 강화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 ▲차별 없는 교육복지 확대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이다.

4대 역점과제로는 학교문화혁신 정착, 청렴한 조직문화 강화, 남북 교육교류 추진, 'The 공감 The 소통으로 다 상상하는 행복동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인 'The 공감 The 소통으로 다 상상하는 행복동부!'를 통해 직급별·권역별 네트워크 강화, 학생의회 중심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속,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교육장은 "아이들의 삶을 기쁘게 교육을 위해 2020년에도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경청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이 되겠다"며 동부 교육가족이 다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 서구 화정1동, 학생을 키우는 마을로 거듭나

'인생 드림 통장' 만들어 광주서초 졸업생 후원



광주 서구 화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의 어른들이 광주서초 6학년 졸업생들에게 '인생 드림 통장'을 만들어 주 큰 관심을 끈다. 특히 6일 광주서초 졸업식

에 맞춰 졸업생들에게 '인생 드림 통장'을 전달했다.

'인생 드림 통장' 프로젝트는 화정1동 새마을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

을문고, 주민센터 등이 합심해 광주서초 졸업생들을 후원하는 제도다. 졸업생 중 후원금을 받기를 희망한 학생들에게 '인생 드림 통장'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후원금은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자생단체 평가회에서 받은 표상금으로 마련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졸업생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앞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광주서초 김미정 교장은 "졸업한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2019 기록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3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기관평

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록관리 서비스 등 4개 분야 17개 지표에 걸쳐 정량 및 정성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전남교육청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록

물류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김춘호 총무과장은 "보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